

신동 왕웅과 효자 왕상 이야기

글 | 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중국 진나라 때 형주자사를 지내며 큰 공을 세운 왕웅은 어려서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웅이 일곱 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왕웅은 동네 아이들과 길가에서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좀 봐. 과일 나무가 있어.”

한 아이가 한 곳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 곳은 나뭇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오얏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와, 신난다! 오얏 따 먹으러 가자!”

아이들은 우르르 오얏나무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왕웅만은 아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이를 보고 왕웅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오얏 따 먹으러 가지 않니?”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좋아하는 오얏나무예요. 길가에 있는데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면, 쓰고 맛있는 열매가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오얏나무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쓰고 맛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은 이 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왕웅은 신동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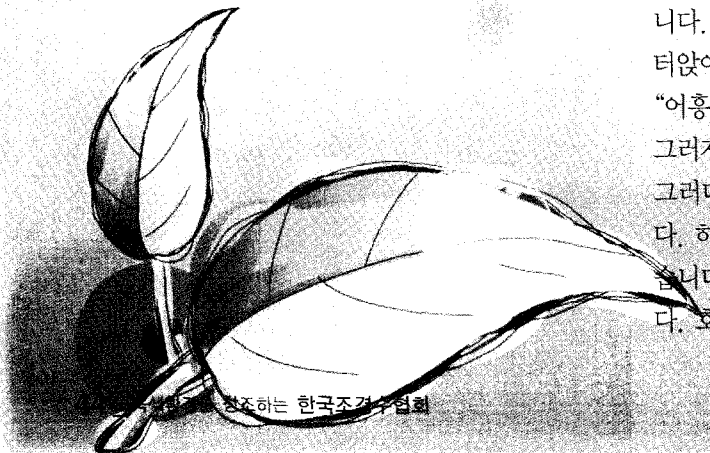
위나라 명제는 낙양성 북쪽에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선무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울타리 안에 호랑이를 가두어 두고 병사들과 싸우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울타리 밖에 둘러서서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이빨을 뽑히고 발톱을 잘렸습니다. 병사들이 호랑이와 싸우다가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왕웅도 호랑이와 병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하려고 선무장으로 갔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울타리 안에는 호랑이가 혼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타리에 바싹 붙어 서서 호랑이를 구경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웅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호랑이가 갑자기 울타리에 걸터앉아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어흥!”

그러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등 법석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왕웅은 꿈쩍 않고 울타리 앞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도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빨도 발톱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



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옹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대범하고 요령이 있었습니다.

뒷날 종횡은 위나라 문제에게 왕옹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옹은 뛰어난 인재입니다. 대범하면서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왕옹을 관리로 임명했고, 왕옹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옹은 고평에 사는 설씨와 결혼하여 왕상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설씨는 얼마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왕옹은 할 수 없이 후처를 얻었는데, 여강 출신인 주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씨 부인과의 사이에 왕림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씨 부인은 성미가 고약하고 못된 여자였습니다. 왕상을 미워하여 온갖 힘든 일을 시키고, 걸핏하면 왕상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왕상은 계모인 주씨 부인이 자기를 괴롭혀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성을 다하여 주씨 부인을 섬겼습니다. 어느 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주씨 부인은 마당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잉어 고기가 먹고 싶어.”

왕상은 이 말을 듣고는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강물은 강추위로 퐁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왕상은 먼저 얼음을 깎습니다. 그리고는 물 속에 들어가 잉어를 잡으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왕상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얼음을 깎는 물 속에서 잉어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왕상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한 모양이었습니다. 주씨 부인이 참새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왕상은 참새를 잡으러 나섰는데, 참새 수십 마리가 그의 방으로 날아든 적도 있었습니다. 왕상의 집 마당에는 오얏나무가 있었습니다. 주씨 부인은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왕상을 불러 말했습니다.

“오얏나무 열매를 지렁이 먹여라.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쥐를

잡아라. 오얏나무 열매를 지렁이 먹여라.”

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왕상은 오얏나무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러자 오얏나무 열매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상이 이렇듯 극진히 섬기는데도 주씨 부인은 여전히 왕상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씨 집안의 재산을 내 아들 왕림이 차지하게 하려면 왕상을 죽여야 해.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릴 것도 없어. 내 손으로 깨끗이 해치우자.’

어느 날 밤, 주씨 부인은 이렇게 결심하고 어둠을 틈타 왕상의 방으로 갔습니다.

“에잇!”

주씨 부인은 왕상이 잠든 줄 알고 칼로 이불을 찢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때 왕상은 오줌이 마려워 뒷간에 가고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왕상은 주씨 부인이 다녀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이 칼에 찢린 것을 보고 주씨 부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상은 원통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죽어 줘야 하는데 기회를 놓쳤구나. 아, 왜 하필 그 때 오줌이 마려워 뒷간에 갔을까?”

왕상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씨 부인의 방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은 지 오래입니다.”

주씨 부인은 왕상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상의 손을 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나를 섬기는 너를 괴롭히기만 했으니…….”

주씨 부인은 왕상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왕상을 진지처럼 사랑했습니다. 